

대전교육청,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 인정키로

윤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3.10 11:28

2020년 3월 부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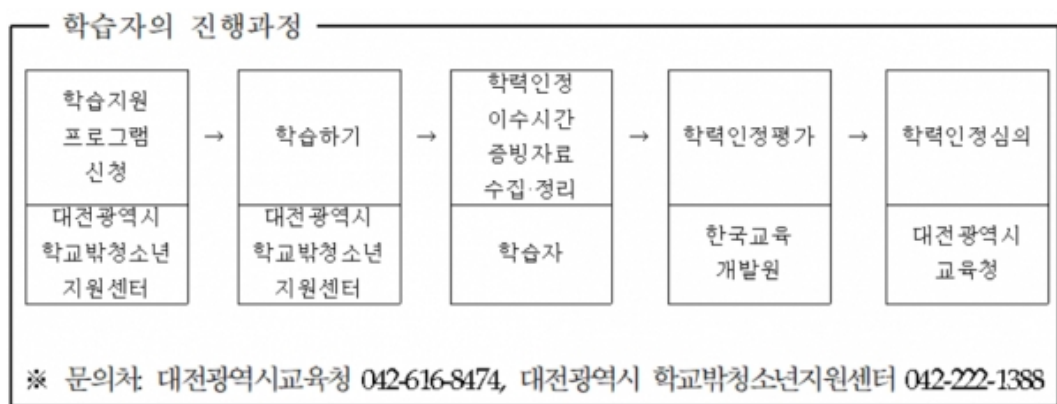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을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

10일 대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9세 이상부터 만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 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

또 연 2회 실시되는 대전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성하 기자